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2. 2024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3. 매주 토요일 전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식품/갤러리아 앞)

4. 새벽 예배는 화, 수, 금요일에 드려집니다(레위기 강해).

5. 꿈나무 선교회 롱렉 미션: 7/10(수)-16(화). 함께 기도와 후원 부탁 드립니다.

6. 최진기 집사님이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7. 손금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8. 빌립보서 1 장 27a 절 (2024 년 6 월 성경 암송 구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9.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톡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27 장(통 27)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52. 시편 27 편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찬 459 장 / 찬 461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327 장 (통 361)	김윤규 목사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빌립보서(Philippians) 1:21-26 (p. 319)	인도자
설교 Sermon		김윤규 목사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목표
The goal of spreading the Gospel in your life

*찬 송 Hymn	323 장 (통 355)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말씀 노트 ||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목표

(롬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 1 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빌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 42 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빌 1: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빌 1: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 1: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 1: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 1: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람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 목회와 삶 || 격려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편에 서세요

런던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하원이는 엄마와 아빠에게 수다쟁이입니다. 하원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일상의 어려운 일이나, 평범한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은 아빠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빠, 저는 우리 엄마와 아빠가 특별하다는 것을 대학교에 가서 알았어요!”

“왜? 모든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특별해!”

그러자 하원이가 말합니다.

“아빠, 우리 엄마와 아빠처럼 자녀들을 믿어 주는 부모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힘이 나요. 제가 무엇이 부족해도 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믿어주고 격려해 주시니까요!”

하원이의 말에 저의 마음 한 구석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원이의 편에 늘 엄마와 아빠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2-22 절에는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13 절)라고 권면한 후에 성도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살전 5:14)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Translated by YG Kim)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하다’라는 헬라어 동사(*paramytheomai*)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누군가의 옆에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가 어떻게 ‘격려하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바로 격려를 하는 사람이 격려를 받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안심시켜 주고 동시에 조언과 위로를 해주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격려의 말로 상대를 도와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격려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향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격려하는 자와 격려를 받는 자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나누는 대화는 충고나 조언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을 담은 격려의 말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은 서로의 편에 서서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쌓여서 서로를 격려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 굳건히 서 나갈 것입니다.

(히 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